

## 성령 강림후 베드로의 설교

### 본문 : 사도행전 2: 22-42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제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나의 증인(You will be my witnesses)이 되라고 했다. 증인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엄숙한 진술을 한 사람”. 혹은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진실을 기꺼이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란 뜻이 있다. 스테반과 같이 순교의 정신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순교의 정신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많이 있다. 폴리갑의 순교의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하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기꺼이 화형을 당했다. 이처럼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확실한 확신이 없이는 증거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에 울려 퍼진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이해 하지 못하고는 사도행전을 이해 할 수 없다.

사도행전을 읽어 보면 수없이 많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설교들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증거”했다는 말과 “말씀을” 증거 했다는 말은 셀 수 없이 많다. 사도행전과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한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이다.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후 베드로의 처음 설교 부분이다. 이 설교 후에는 3000명이 회심을 하게 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 설교를 간단히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 첫째 그분의 생애와 사역(2:22)

22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기서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이고, 기사는 놀라움을 야기 시키는 것이고, 표적의 목적은 영적 진리를 구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했다고 베드로는 설교했다.

#### 둘째, 그분의 죽음(2:23)

23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죽음은 유다의 배신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 셋째 그분의 부활(24-32)

24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결코 사단의 무기인 죽음의 공격으로 끝이 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사망의 고통과 매임에서 살려 내신 분이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 하심으로 죄사함과 중생이 가능한 것이다. 베드로는 이미 다윗이 수백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 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인용 한다.

25-28절을 읽을 것

25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었음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6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28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다윗 자신의 이야기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왜냐 하면 그는 죽어 장사 되어 그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부활을 예언 한 것이 아니다(29).

30-31절에서 다윗은 예언 자라고 말함으로서 다윗이 부활을 예언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베드로가 성경은 너무나 깊이 알고 있다는 증거이다. 베드로는 정식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최고의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훨씬 성경의 깊은 뜻을 알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공회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4:13)이라고 말한 것은 정식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베드로는 성경을 근거로해서 예수의 부활을 확증하고 그뿐 아니라 친히 그가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라는 것이다.

32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예수의 부활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셋째. 그분의 높이 올리우심(2:33-36).

예수님은 부활 하신후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것이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이 승천도 자기가 지어만들어 낸 이야기가 아니고 시편 110편에서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 하신 것이다. 그 내용이 2:33-36에서 확증해 주고 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란다. .

#### 다섯째. 그분의 구원(2:37-39).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양심에 찔림을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37). 설교는 양심에 호소해야 한다. 양심이 마비되어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죄를 깨닫지 못한다. 예수에 대한 바른 증거를 하게 되면 양심이 살아나서 죄를 깨닫게 된다. 죄를 깨닫는자에게 주어진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

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죄를 깨닫는자에게 주어진 축복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런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세례의 의미는 그분의 권위에 의해 그분의 주장을 인정하고 그분의 교리에 동의하며, 그분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고, 그분의 공로에 의지한 것이다.

성령은 그들을 중생시키고 그들 안에 내주 하시며 그들을 연합시키고 그들을 변화 시키는 일을 한다. 하나님의 선물 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시 공간에서 주어진다.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성령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를 바란다.

#### 여섯째, 그분의 새로운 공동체(2:40-41)

40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누가는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덧붙인다. 왜냐 하면 그는 이밖에도 여러말로 그들에게 확증하며 권면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증거의 권고의 본질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40)는 요청이었다. 베드로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회심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패역한 세대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라는 것이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주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2:43). 교회는 세상사람들이 깔 보면 안 된다. 세상에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베드로의 설교의 열매는 놀라웠다. 수적으로 3000명이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연합을 가져온 하나의 결속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곧 온전한 연합과 조화(Perfect unity and Harmony)는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는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는 오직 설교에 달려 있다. 흔히 우리는 이런 말을 듣는다. 설교는 못해도 교회는 부흥 할 수 있다. 설교는 좋은데 교회 부흥은 안 된다. 이것처럼 잘 못 된 말이 없다.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교회 성장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을 잘 증거 하는 것이다.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해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한 설교는 잘 못 된 것이다. 비록 설교가 흥미를 주지 못해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한 설교는 죄 사함 받는 역사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설교자가 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된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온전한 연합과 조화(Perfect unity and Harmony)가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